

# “내일이면 광복 72년...일본 사죄 언제쯤”

### 근로정신대 할머니 미쓰비시 상대 민사 또 승소...1심 완료 피해자 8명 평균연령 86.8세...대법원 선고 5년째 ‘멈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에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관련 소송은 2012년(1차)·2014년(2차)·2015년(3차)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제기됐는데, 1, 3차 판결에 이어 지난 11일 2차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8·15 광복절 72주년(15일)을 앞둔 상황인데다 그동안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제기한 1심 소송이 모두 완료된 것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1일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

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제 징용됐다가 숨진 오길에(당시 14세)씨의 남동생 오철석(81)씨에게 1억5000만원, 김재림(여·87)씨에게 1억2000만원, 양영수(여·86)·심선애(여·87)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명백하므로,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제기된 1차 소송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으면서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 할머니들의 속도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인팍에선 대법원에 계류 중인 1차 소송

에 대한 결론이 조속이 이뤄져야만 강제 노동에 시달린 피해 할머니들의 한 많은 삶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13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주·전남 지역에 신고된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유족 포함)는 광주 16명·전남 29명 등 모두 45명이다. 이 중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와 유족은 모두 11명이며, 피해자들은 모두 8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령은 86.8세다.

소송은 1차·2차·3차 등 모두 세 차례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의 피해 할머니가 참여한 1차 소송은 2012년 10월 제기됐다.

이듬해 11월 광주지법에서 열린 1차 소송에서 재판부는 미쓰비시는 원고들에게 1인당 1억50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에서도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대법원은 아직까지 확정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승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들의 낯에선 좀처럼 웃음을 찾아볼 수 없다. 2차·3차 손해배상 소송의 2심·3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1차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으면서다.

특히 대법원의 판결은 한·일 정부간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1차 소송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고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대법원의 판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령의 당사자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며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김용희기자 kimyh@



금남로 우산 행렬 광주·전남지역에 내린 비로 더위가 한풀 꺾인 13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길을 가고 있다. 이번 비는 16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학생운동 지지 최윤숙선생 대통령 표창

### 보훈처, 광복절 기념 128명 독립유공자 포상

1930년 광주학생운동을 지지하는 시위를 주도한 여성 독립운동가 최윤숙 선생이 광복절에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쿠바에서 광주학생운동을 지원한 이승준 선생의 손녀인 엘리자베스 주닐다(여·26)는 귀화대상에 포함됐다.

국가보훈처는 제72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로 새로 인정된 128명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포상한다고 13일 밝혔다. 포상별로는 건국훈장 63명, 건국포장 16명, 대통령 표창 49명 등이다.

최윤숙 선생은 서울 이화고등보통학교 재학중 광주학생운동을 지지하는 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돼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이승준 선생은 1882년 태어나 1905년 23세의 나이로 멕시코 에네켄 농장으로 이

민을 떠났다가 1921년 다시 쿠바로 이주했다. 1924년부터 대한인국민회 쿠바 마탄 자지방회 회원으로 가입하고 구제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독립자금을 냈다.

1930년 2월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쿠바 마탄자스에서 지지대회를 개최하고 후원금 100달러를 모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국민회에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선생의 손녀인 엘리자베스 주닐다(26)는 선생의 공적이 인정돼 특별 귀화 대상에 포함됐다.

구한말 의병으로 활동하다 붙잡혀 옥중 순국한 이영삼(1875~1910) 선생도 포함됐다. 보훈처는 국가기록원에 있는 전주형 무소 자료 등을 분석해 의병 활동과 순국 사실을 확인했다. /김용희기자 kimyh@

## 깊어가는 ‘조선대 갈등’

### 대자협, 이사회 사퇴 촉구 농성...이사회, 명예훼손 시정 요구

조선대 이사회와 학교 구성원들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3일 조선대에 따르면 법인 이사회는 지난 10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조선대학교 총장 이사장 지시사항 불이행 및 이사회 명예훼손에 관한 건’을 상정했다.

이사회는 이 자리에서 “(총장이 나서) 법인 이사장실 및 사무처장실 점거를 조속히 해제할 것”을 결의했다. 이들은 또 “법시인대책위’ 출범식에 참석해 이사장 퇴진을 촉구, 법인 이사회 및 이사 개인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며 총장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이는 학내에서 이사 퇴진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이사회의 대응으

로 풀이된다.

조선대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자협) 등 대학 구성원들은 지난날 20일 현 이사장을 횡령배임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조선대 민주동우회 소속 회원 등은 현재 조선대 중앙 현관 앞에서 이사들의 사퇴를 촉구하며 3개월여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25일 사실상 끝난 만큼 이사들은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대에 따르면 법인 이사회는 지난 2월 25일 7명(정원 9명·2명 사퇴)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구성원간 갈등으로 후속 이사 선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1    몰림 23:28  
해질 19:23    달림 12:04

#### 한걸음 물러선 더위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다.

#### ◇지역별 날씨(℃)

광주	비	22/28	보성	비	22/25
목포	비	23/28	순천	비	22/28
여수	비	22/26	영광	비	22/28
나주	비	22/27	진도	비	25/29
완도	비	24/28	전주	비	22/26
구례	비	21/27	군산	비	22/26
강진	비	23/28	남원	비	21/26
해남	비	23/29	홍산도	비	22/29
장성	비	22/26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동	1.0~2.0	동	1.0~2.0
남부	남동	2.0~4.0	동	2.0~4.0
남해	남동	1.0~2.0	남서	1.0~2.5
서부	남동	1.5~3.0	남서	1.5~3.0
면해	남동	2.0~3.0	남서	2.0~3.0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1:38	06:27
	-:-	19:01
여수	07:06	00:52
	19:24	13:31

#### ◇주간 날씨

15(화)	16(수)	17(목)	18(금)	19(토)	20(일)	21(월)
☀	☀	☁	☀	☀	☀	☀
25/31	25/31	24/33	24/33	24/32	24/30	24/30



◇생활지수

- 위험
- 보통
- 보통

## 광주·전남 이번주 최고 200mm 비

이번 주 초 광주·전남지역에 최고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4일 광주·전남지역은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다”며 “예상강수량은 50mm~150mm, 곳에 따라 최고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고 13일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도~24도, 낮 최고기온은 25도~28도 분포를 보이겠다. 이는 평년 낮 기온보다 3도 이상 낮은 기온이다.

이번 비는 오는 16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그칠 전망이다. 또 곳에 따라 천둥·번개와 강한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특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야영지·계곡 등을 찾는 야영객들은 산사태·침수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이 같이 광주·전남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찜통 같은 무더위는 당분간 추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비가 그친 뒤에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 북구 ‘구의원 어린이집 특혜’ 내규 삭제

광주 일부 구청이 ‘직장 어린이집에 구의원의 자녀까지 교육대상에 포함시켜 논란’(광주일보 10일자 7면)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해당 구의회가 13일 해당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구의회 김상훈 의장은 이날 광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현행법상 구의원 신분도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돼 구청 직원들을 위해 만든 직장 어린이집에(구의원의) 자녀를 보낼 수도 있지만 지역 여론을 감안해 해당 내부 규정을 삭제하도록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

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특혜시비와 관련해서 “내부 규정은 훈령으로, 구의원들의 심의를 받지 않는다. 우리도 전혀 있는 것과 관련, 해당 구의회가 “해당 내부규정에 대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주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면 이를 바로 잡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 서구와 북구는 직원들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서 구의원을 ‘직원’으로 규정해 사실상 그 자녀까지 교육대상에 포함한다는 내부규정을 만들어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는 오천경매와 함께 하십시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